

2/28/16

설교 제목: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시편 31 편

- (시 31: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 (시 31: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 (시 31: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 (시 31:4)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 (시 31: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 (시 31:6)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 (시 31: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 (시 31:8)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 (시 31: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 (시 31: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 (시 31: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절관주** 시 88:8
- (시 31: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 (시 31: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 (시 31:14)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 (시 31: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절관주** 욥 14:5

- (시 31: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 (시 31: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 (시 31: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 (시 31: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 (시 31: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절관주** 욥 5:21
- (시 31: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 (시 31:22)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 (시 31:23)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 (시 31: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즈음 안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시는지요?

직장은 안전하시고요?

가정은 아무 일 없으십니까?

자녀들은 속 안 썩이고 잘 자라고 있나요?

아이고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경제는 점점 나빠지지... 돈이 안도니 매일 저녁 부부 싸움이고 자식 새끼들은 제멋대로이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한테 제 사정을 들으셨나요?

모세는 시편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시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니 인생, 내 인생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내가 살아온 생을 책으로 쓰자면 족히 몇 권은 될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본 시를 쓴 기자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2 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40 년간 통치하면서 역사 이래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고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시킨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의 걸모습은 누가봐도 화려하고 영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도 속을 들여다 보면 어김없이 고난과 절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쓰러뜨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는 그 후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백성들 사이에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사울 왕의 질투와 견제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감행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쫓겨다니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그는 한날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총복 우리야의 아내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겨우 자신의 죽음은 모면하게 되지만 자신의 죄값을 평생 치러야만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을 잃었으며 집안에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맏아들 암논은 형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세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내란을 일으켜 자신이 궁밖으로 쫓겨나야 했었고 네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 뜻과 달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집안에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들어 이미 알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그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욥도 바울도 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 다 그런 고난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창세기 절반 즉 25 장부터 50 장까지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이 기록들이 말해 주듯이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죽은 줄만 알았던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인도로 바로 왕을 대면했을 때 바로 왕에게 자신의 생을 정리하여 고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 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는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집을 도망쳐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유사한 성품을 지닌 외삼촌 라반과 20 년이란 세월을 서로 속이고 속고 살면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문득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라반의 집을 야밤 도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그는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복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온 그는 왕의 경호 대장이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여 곡절 끝에 애굽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 갔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이복 형제들을 향한 배신감, 세상에 대한 불신, 나아가 장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으로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400 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민족 해방 운동가요, 입법자요,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모진 세월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 공주의 딸 양자가 되어 애굽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 세 되던 해 어느날 애굽 사람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모세는 궁전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아무도 알아 주는 이 없는 공허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암담하고 처절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요은 부자였고 자식 농사도 잘 지은 의인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과 함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던 그가 한 순간 재산과 자녀, 건강 모두를 잃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독설까지 내 뱉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위로는 커녕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베냐민 지파)에다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가말리엘 문하생이었고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댓가로 받은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핍박과 고난을 열거합니다.

(고후 11: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후 11: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고후 11: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후 11: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후 11: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혈벗었노라

이상으로 우리는 어느 인생이든지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끝이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어떤 인생은 그대로 망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누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인생에서 역경을 이기고 승리로 이끈 이들은 하나같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다는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혈혈 단신으로
광야를 유리하며 목숨을 이어나가던 시절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시간 우리는 본 시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자신 생애 놓여있던 극심한 환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 성찰해 보겠습니다

1.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숨김없이 호소합니다.

(시 31:9)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 31:10)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는 오랜 도피 생활로 몸과 영혼이 지칠대로 지쳤다고 고백합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원수들의 위협에 죽음이 바싹 다가옴을 감지하며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기력은 탈진되었으며 뼈가 녹아 내린다고 말합니다.

(시 31:11)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 31: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잘 나갈 때는 간까지 빼줄듯이 아양을 떨던 친구들 이웃들이 이제는 자신을 잊은지 오래이고 어쩌다 부딪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피한다고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시 31: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런건 차치하더라도 대적이 자신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니 두려움에 오금이 저리다고 고합니다.

2.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시 31: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비장하게 하나님을 택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시 31: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 31: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시 31: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3. 다윗은 자신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시 31: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시 31: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 31: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시 31:22)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잠시 믿음이 흔들렸던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며 끝을 맺습니다.

(시 31:23)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 31:24)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라고, 눈
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희비희락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살이로 인해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탈출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같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펼쳐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